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담당 국장

며칠 전, 출근길 차안에서 라디오를 들던 중 한 청취자의 사연이 귀에 꽂혔다. 지난해 35년간 근무했던 직장...

그렇다고 별다른 취미도 없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비제의 카르네 서곡을 틀어달라고 했다. 경쾌한 리듬의 신중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생면부지의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미술관 로비에서 서성이 이유

그로부터 며칠 후, 취재자 들른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 미술관이 있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중의공원은 평소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로 북적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인상적인 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자에

시니어를 위한 미술관은 없다?

앉아 멍하니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었다. 계층에는 미술관에 들어온 김에 전시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림 대신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거나 미술관 밖을 무심히 바라 보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그 순간, 10여 년 전 미국 시라큐스 중심가에서 우연히 만난 60대 어르신의 '들뜬' 표정이 오버랩됐다. 버스가사로 30년간 일했다는 그는 새로운 전시나 이벤트를 즐기려 위해 아내와 함께 주 1회 이상 미술관을 찾는다

평생 버스가사로 일했던 그를 미술관의 세계로 안내한 건 '교육'이었다.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어 망설였던 그는 아내의 권유로 에버슨 미술관의 '시니어 강좌'에 등록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

사실, 3만 5000개의 미술관을 보유한 미국에서 정년 퇴직한 60세 이상 시니어는 '귀하신 손님'이다. 시간적인 여유와 세월의 연륜을 지닌 이들은 문화체험 등 새로운 배움에 목말라하는 적극적인 소비자(active senior)이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겨냥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은 국제 미술계에서 유명하다. 유스호스텔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프로그램으로 5박6일 동안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투어

하며 수강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미술관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삶의 활력을 얻는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삶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50~60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이들도 있다.

문화생활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하지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이같은 흐름에서 한발짝 비켜서 있는 듯 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물론 광주문화재단, ACC, 광주예술의전당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은 액티브 시니어들을 유인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부족하다.

요즘 지난해 말 발간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메트)의 경비원입니다'(웅진지식하우스 권)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며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메트의 경비원으로 10년 근무한 저자가 세상의 축소판 같은 미술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스토리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 의미와 거부·회피

(사설, 칼럼) 등 일지된 사례가 일반적인 '국민의 뜻'과 여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결과(수치)가 바로 '국민들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눈높이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이지만, 진정한 '국민의 눈높이'란 어떤 일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나 화불이 아닌 그 시대의 법적 기준이나 규정, 정서에 따른 '국민의 인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제 2년이 못되는 동안 국회에서 발의하여 넘어온 법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아홉 번째로 거부권(1월 30일)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1987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성남 대상동 사업 50억 클럽)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로 '재외요구안(거부권)'을 국회로 보냈다. 그런데 쌍특검 거부권 여론은 반대 70% 찬성 20%, 이태원 특별법은 재의결 50% VS 폐기 33.7%로 나타났으며 김 여사 명품 백에 대한 수사 필요성 응답은 56%이다.

그런데 결국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재 표결 결

과 둘 다 부결됐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 표결 후 폐기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다섯 번째다. 그렇다면 이처럼 잦은 거부권 행사가 본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한편,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도 여야 모두 논란이 많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내용으로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기준이 예매한 전략공천, 친명·비명·친명에 따라 단수 공천, 당내 경선, 컷오프(공제배제)가 이뤄졌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했으며 분열의 큰 위기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선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의원들의 비상식적 개인적 발언, 특히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수사에 외압 의혹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출국시킨 일은 '불공정'한 처사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져 이번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의힘도 시큰둥하다.

이제 여야는 최근 여론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천 논란도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일체 없을 것이다. 정부는 격상된 민심의 수준을 생각하여 인기영합적인 설익은 아마추어적 대책은 접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모든 정책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세심히 행해져야 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꿈을 꾸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늘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 같다.

꿈을 소재로 한 유명한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인셉션(Inception)'이 있다. 영화 속 주인공 코브는 드림머신이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꿈에 침입해 생각을 빼내거나 조정한다. 영화에서는 현실과 꿈을 넘나들기 때문에 꿈과 현실의 경계마저 모호해진다. 좀 더 강력한 꿈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인공은 한 약제사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환각제에 취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는 듯 보여지는 많은 이들과 마주하게 된다.

꿈은 대개 잠들기 전 겪었던 일상생활 속 일, 감정, 고민거리, 욕구, 바람 등이 투영된다. 그러다 보니 흔하게 꾸는 꿈속 배경과 인물, 행동들도 꿈을 꾸는 이에 게 익숙한 것들이 꽤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합돼 꿈을 만들어 내는 대다수의 꿈은 허무맹랑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다.

세상을 살다보면 남다른 차별을 받을 때가 있지만 꿈을 꾸는 것에는 누구나 큰 제약이 없다. 경험이라는 행동은 누구나 가능하게 인류 탄생 이래 간담에 나타난

꿈 속에서 기억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학자들은 꿈이 생명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꿈을 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대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꿈을 꾸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의 수준을 넘어 생존에도 중요한 두뇌 활동인 것이다.

어릴 적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보며 꿈을 꾸었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때 꿈은 손이 닿을 듯 가까웠고, 세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꿈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단순히 잠결에 떠오르는 환상에 그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깊은 욕망과 열망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될 수 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 꿈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꿈을 꾸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社說

총선 대진표 완성...정책으로 공정 경쟁해야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각 정당들이 후보를 확정했다.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기간인 21일과 22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호남 선거판의 특징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텃밭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 12명만이 공천에서 탈락해 현역 교체율이 67%에 달한다. 특히 광주는 8명 가운데 한 명만 살아남아 역대급 현역 교체 여론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에선 16년만에 광주·전남 18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인 광주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두자릿수 득표율을 획득한 것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검찰 독재 청산을 내건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이 제대로 먹힌 때문인데 호남에서는 40%를 넘나드는 비례정당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새로운미래 이

낙원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구에 출마한 것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밀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물론 송영길의 소나무당까지 호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호남 총선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예년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릴지도 무소속 정치인의 선전 여부가 관심이 고비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8년전 국민당의 지지율을 넘어설지가 관전 포인트다. 어느때보다 관전 포인트가 많아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그나마 넓어진 측면이 있다. 그만큼 정당마다 치열한 선거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흑색선전과 무책입한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 이렇다할수록 지역구에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으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해외 출장 여친 동행'...공직기강 강화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공무 국외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 등 19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원한 진흥원은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기업 지원 기관이다.

그제 공개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 팀장 A는 2019년 11월 프랑스 파리(2박 4일)와 2023년 9월 영국 런던(7박 9일) 등지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지인 여성 B와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외 전시 참관 및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유류 수요처 발굴, 시장 해외 판로 개척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무 국외 출장이었다. 하지만 기존자인 A는 프랑스 출장 때 B와 동행해 호텔 룸에서 함께 숙박하고, 영국 출장 때 역시 진흥원에서 예약한 버스에 B와 함께 탑승해 런던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감

사위원회는 진흥원에 팀장 A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처분(중징계)을 하라고 조치했다.

앞서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해 '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한 직원이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조작 제출해 배우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것이다.

한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린다. 도를 넘고, 해이한 공직기강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을 위해 묵묵하게 본분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한 광주 공직사회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이 없더라 생각건대, 간관의 직분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관을 맡는 사람은 그 풍태와 태도, 말과 논의가 모두 임금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 직책을 욱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1789년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고, 1791년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지평에 차례로 임명되었을 때 정조에게 올린 사직서상 일부이다. 그는 이 자리가 제수되지마자 이렇게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간관은 임금에게 강하게 간언하고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하는 자리인데, 아직 임금의 제자나 다름없고 어리기에 그 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신하들의 견해가 심했다는 점은 낱두더라도, 이것이 정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마음이 컸을 것이다.

정약용은 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제도의 개선 방향을 상소에 소상히 담아 올렸다. 그의 사직상소가 각별

한 이유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과거만 있고 천거(薦舉)가 없으며, 과거시험은 시험 합격자를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기에 인재가 천거하는 제도를 도입해 선비들이 학문 도야와 자기 수양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선조들이 왕에게 올렸던 사직상소는 요즘 기관이나 직장에서 내는 사직서나 사표와는 아주 달랐다. 단순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임금과 조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포함한 성명서나 의견서 성격이 강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며 양식에 따라 몇 자 적는 오늘날의 사직서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들로선 사직할 명분이 차고 넘치겠지만, 이것이 정당한지와 대안이 될 할당할 개선책은 없는지 생각해볼 게 먼저다. /김대세·제2사회부장 bigkim@

사직서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은폐칼럼



한국한 경영학 박사

몇 년 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영역에 걸쳐 자주 듣는 말이 '국민의 눈높이'다. 특히 재판 결과나 정당과 각종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한국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일을 일사천리로 하여 '런증상'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뢰 인프라는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는 4·10 총선을 발표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민낯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측정할 것인가? 이는 선거 때의 투표 결과나 각종 여론의 찬반 비율, 또 여러 매체에 보도된 의견

기 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교수

두 눈을 감고 잠의 세계에 빠져들면서부터 피로가 누적된 뇌는 휴식기에 들어간다. 이 때 신체는 누적된 피로를 서서히 회복하게 된다. 한편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 기관 중 촉각, 후각, 미각 등의 대부분의 감각 기관도 활동이 최소화 되는 휴식기에 돌입한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하다.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라는 생리학적인 의미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은 이렇듯 생리적, 정신적, 이상적으로 꿈과